

엔저에도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이 지속될까

- 엔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제 강재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들이 해외생산과 현지조달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변하지 않아 업적개선 효과는 한정적
- 엔저라 하더라도 해외 진출한 일본 제조기업의 국내 회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일본기업의 과제

□ 엔저로 일본의 실물경제는 개선되고 있는가?

- 엔저 및 주가 상승으로 일본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물경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음
 - 단기적인 엔저 효과로 일본제 강재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,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들이 해외생산과 현지조달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‘12년도 자동차의 일본 국내생산은 18.4% 증가하였지만, 해외생산도 전년 대비 14.6% 증가하여 해외생산은 지속될 전망
 - 도요타는 '15년부터 미국에서 렉서스·ES 생산계획을 발표, 현지에서 750명의 고용이 확보될 전망
 - * 혼다와 마쓰다는 미국의 FTA망을 이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신규 공장을 건설
 -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기업들의 기본전략이며, 수출이 증가하면 환율에 관계없이 제조업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

- 엔저가 반드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, 실제로 엔저 현상이 시작된 '12년 가을부터 일본의 수출량은 계속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
- * 와세다대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지금과 같은 환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, 수출 증가보다는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이익 확대가 더 클 것으로 예상

□ 엔저에도 늘어나는 해외생산 이전

- 일본의 철강기업들은 일본 국내의 설비 집중과 해외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
- '08년 리먼 사태 이후 일본 국내의 자동차용 강재의 수주가 대폭 감소하였으며, 향후에도 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
- 신닛테츠스미킨(新日鉄住金)은 치바 기미쓰제철소의 용광로 1기를 '15년도 말에 가동을 중지하고, 와카야마제철소에 신규로 건설한 용광로는 가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
- 이는 일본 국내생산설비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해외로 경영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, 해외에서는 한국의 포스코 등과의 경쟁이 치열하며,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용광로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
- * 태국에서 생산되는 닛산·마치(March)에 사용되는 강재의 50%는 포스코에서 조달
- 신닛테츠스미킨은 '13~'14년에 멕시코, 태국, 인도 등에서 자동차용 강판과 파이프용의 생산설비를 가동시킬 계획
- 일본 철강업체들은 냉연강판, 자동차용 강재 등 하류제품을 현지에서 가공하는 전략을 추진

- 자동차 기업은 일본 국내공장에서도 해외에서 부품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 - نيسان은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함으로써 규슈공장의 비용을 대폭 삭감시키는 데 성공
 - 규슈 공장은 부산에 입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주변 부품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 중
- 각국에서 부품의 공통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이것이 부품 기업들에게는 대량 수주 및 대량 공급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
 - 국내든 해외든 지역에 관계없이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품 설계도나 공장의 기계 배치를 모두 통일시키는 등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음
 - 부품조달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, 향후 해외조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'11~'12년에는 노동비용이 저렴한 베트남에서의 부품 조달이 증가했지만, 현지 통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엔저가 진행되어도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문제도 있음

□ 시사점

- 엔저라 하더라도 일본 제조기업의 국내 유턴은 쉽지 않아 보이며, 향후에는 해외생산 또는 철저한 고부가가치 추구 등 양극화가 진행될 전망
 - 중국이나 동남아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, 일본기업과의 코스트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므로, 코스트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,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시점

- 또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지화, 리스크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제조업에 과다하게 의지하지 않는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투자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
- 닛케이신문이 ‘13년 5월 10일, 일본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달러=100엔인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
- 해외에서 원재료나 부품의 조달비용 증가, 전기료와 연료비 증가, 거래처에서 소재 등 구입가격의 인상 요청 등이 엔저 상황에서도 수익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지적
- 환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금융·통화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
- 양국 간 금융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경제 통합이므로 인적, 물적 자원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

<참고 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5.1./4/10), 주간 동양경제(2013.4.20), 주간 다이아몬드(2013.4.20, 5.4)